
		보 도 자 료	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
		배포일자	2021년 3월 16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 당 자	• 식생활안전팀장 소기호 ☎440-2771 • 담당자 임명택 ☎440-2772		
사 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상춘객 방역·식품안전 불안감 없앤다
- 3월 23일까지 봄꽃 탐방지 등 나들이 시설 주변 음식점 및 푸드트럭 일제점검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봄나들이 철이 다가옴에 따라 유명 행락지에 꽃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, 유명 관광지 내·주변 음식점 및 푸드트럭에 대한 방역·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점검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, 점검대상 업소에서 조리되는 김밥, 핫바 등을 비롯한 조리음식에 대해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한다.
- 주요 점검내용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점검과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 점검이 병행 실시되는데, 테이블 등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.
- 그 외에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,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식재료의 사용 등을 살펴보고,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등

식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예정이다.

- 위반업소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, 특히, 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에 대하여도 집합금지, 고발, 구상권 청구 등이 조치될 수 있는 만큼 봄철 행락지 주변 음식점의 철저한 업소관리가 요구된다.
- 시는 점검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를 방문하는 점검반에게 마스크, 위생가운 및 장갑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.
- 최창남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코로나19와 겨울철 움츠렸던 마음에 위안을 삼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최선을 다 하겠다” 며, “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기 위해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나들이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.” 고 말했다.